문무왕의 **불교신앙과 문화유산** ⑳ 화전리 사방불

고구려人 마음으로 불상 만들어



1983년 충청남도 예산군 화전리에서 발견된 것으로 돌기둥 4면에 불상이 새겨져 있는 백제시대 유일의 사방불이다.

고구려 불교를 짐작할 수 있는 유물은 무척 적다. 그래서 조상기(造像記)들이 남아 있는 연가7연명 금동불입상을 비롯한 현재 몇 안 되는 불상들은 의미가 깊다. 조상기는 고구려 불교의 새로운 모습을 알려주는 단서이다. 건흥5연명 금동석가불 광배, 연가7연명 금동불 광배, 계미명 금동삼존불입상, 경4연명 금동삼존불 등은 조상기가 현재까지 남아있는 불상들이다.

현재 고구려 불교에 관한 연구는 승랑을 필두로 해 중국과 연관이 많은 이들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또한 국가불교적 양상하에서만 연구가 됐기 때문에 실제로 고구려 불교의 모습을 짐작하기는 어려웠다. 조상기는 이런 부분에 있어 실제 신앙을 한 이들의 기록을 살피는 것으로 역사의 한 자락을 들춰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건흥5연명 금동석가불광배는 고구려 것인지 백제 것인지 정확하지 않다. 이 유물에는 '석가문(釋迦文)'이라는 명칭이 등장한다. 석가모니불로부터 영원히 법을 듣기 바란다는 뜻의 이 말은 〈아함경〉을 비롯한 여러 경전에 등장한다.

연가7연명 금동불광배는 6세기 중반에 돌아가신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조성된 미륵상이다. 용화삼회의 자리에서(미륵불이 이 땅에 현신해 중생을 제도하는 일) 열반의 진리를 깨우치고 모든 죄가 소멸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 계미명 불상은 돌아가신 아버지를 그리며 조성됐다. 경4연명 역시 스승과 부모들이 다시 태어날 때 마다 모든 부처님과 선지식, 미륵을 만나기를 기원하고 본인들 역시 부처님을 만나 법문을 듣길 기원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를 바탕으로 고구려인들이 조상은 단순히 사상을 넘어 인간 본연의 심성에서 시작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심성의 뒤편에는 법화사상을 기반으로 한 현세적인 기원과 국가적 이상이 함께 어우러진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중국에서도 비슷하게 발견됐다.

백제의 경우도 고구려와 마찬가지로 현재 남아 있는 유물로서는 당시 불교신앙을 짐작하기 어렵다. 그나마 태안반도에 존재하는 태안 마애삼존불, 예산 화전리 사방불, 서산마애삼존불 등이 백제불교의 흐름을 짐작케 한다. 이 불상들의 위치는 바닷가에서 내륙으로 이어지는 곳에 순서대로 자리한다. 이 중 화전리 사방불상은 바닷가에서 가장 가깝지만 가장 먼저 조성됐다.

화전리 사방불은 동서남북 사방에 조성된 불상이다. 사방에 조성된 불상의 종류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다. 〈관불삼매해경(佛說觀佛三昧海經)〉의 '본행품(本行品)'에 따르면 동쪽에는 아촉(阿閦), 남쪽에는 보상(寶相), 서쪽에는 무량수불(無量壽), 북쪽에는 미묘성(微妙聲)이라 기록돼 있다. 물론 이러한 배치를 그대로 따랐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지만 추론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런 사방불의 모습은 중국 운강석굴이나 공현 석굴에서 나타난다. 이것이 훗날 한국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고구려 등 역사서 드문 상황에서

조상기는 불교신앙 살펴 볼 단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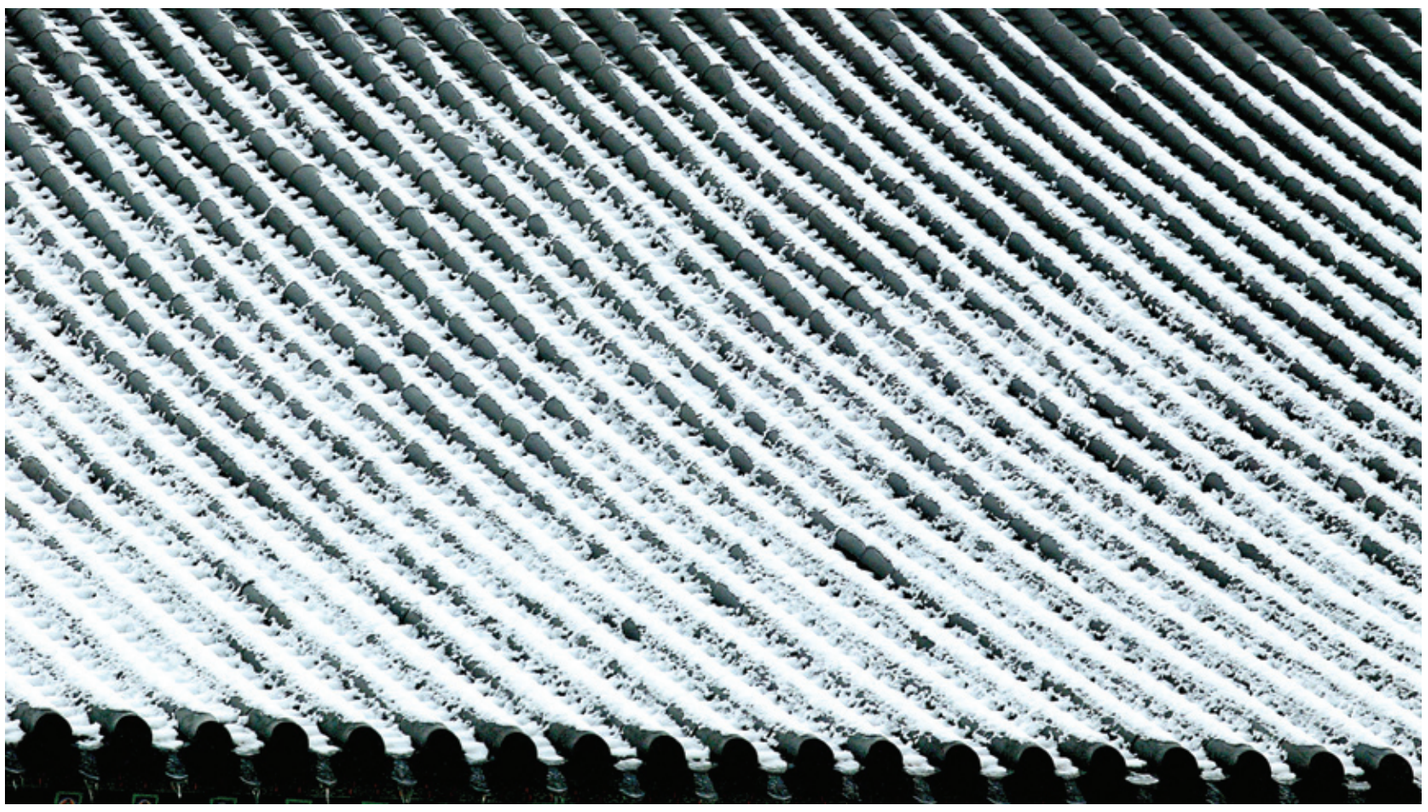
이런 신앙은 단순한 타방 정토에 대한 신앙이 아닌 불탑신앙의 새로운 형태이다. 탑 주변으로 불상을 둘러 배치하는 형식은 인도의 산치대탑이래로 다시 중국으로 전래됐다. 이런 형식이 다시 한국으로 전래됐으며, 우리나라만의 독립적인 불탑신앙으로 자리 잡았다.

불탑신앙은 불교신앙 중 가장 원초적이고 강렬한 신앙이다. 불교신앙의 대상이 됐던 불탑은 불상이 조성되지 않던 시기에도 부처님을 상징하는 중요한 대상이었다. 이러한 신앙이 불상 조성과 함께 불상과 불탑이 공존하는 형태로 바뀌었다. 백제불교 신앙의 일면에 이러한 신앙의 형태는 매우 흥미로운 일이다.



동국대 불교사회문화연구원 전임연구원

박재완 기자의 **불교사진이야기** 65



조계사

잠들 시간도, 깨어날 시간도 따로 없는 절, 서울 견지동 조계사. 산문 밖에선 고단한 차들이 새벽 범종소리를 물고 어디론가 달려가고, 백발의 할머니는 차가운 향에 불을 붙인다. 달빛이 할머니의 그림자를 끌고 법당으로 가고, 법당 지붕 위에선 잔설이 빛난다.

산새소리도, 걸어 들어갈 숲길도 따로 없는 절, 서울 견지동 조계사. 잠들지 못하는 부처님 곁에서 참새들이 목탁소리를 듣고, 차가운 좌복 위에 쓰러진 이마엔 이내 땀방울이 맺힌다. "관세음보살"

표주박 걸린 수각도, 거미줄 지나간 부도밭도 따로 없는 서울 견지동 조계사. 밤새 달빛에 빛나던 잔설 위로 아침 햇살이 찾아오고, 석조의 빌딩 숲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풍경을 흔들어댄다.



사진부 차장

그림으로 본 **극락세계**

제27도 아미타내영도(阿彌陀來迎圖)

삼화는 아미타 부처님이 보살, 비구, 신중 등 대중의 호위를 받으면서 구름을 타고 내려와 아미타불을 염불하는 사부대중을 내영하는 장면이 전개되고 있다.

오른쪽 상단에는 중생들이 그토록 원하는 극락이 구름 속에 상징적으로 등장하고 있고, 하단에는 왕생진언이 새겨져 있다. 고려시대 불자들은 아미타내영도 불화를 그려 내불당에 모시고 사후에 극락왕생을 발원했다.

우리도 이제 아미타내영도 판화 한 장이라도 자신의 서재에 모셔 놓고 칭명 염불할 수 있다면 사후 극락왕생에 대한 믿음으로 인해 현재의 삶도 진지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불자들도 막연히 극락을 꿈꿀 것이 아니라 이미지화 된 극락세계의 삼화를 통해 사후세계에 대한 확신에 찬 믿음으로 이어가보자. 이러한 수행이 익어 가면 우리의 믿음이 생각에 머물러 있지 않고 바로 나의 삶속으로 녹아 들어와 사바세계의 삶이 바로 아미타부처님이 내영하는 극락임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고판화박물관소장 〈불설아미타경〉 제27도 아미타내영도(阿彌陀來迎圖). 덕주사판 1572년간행, 반곽(半郭) 28.2×21.0㎝

선학스님(명주사 고판화박물관 관장)



